

영적문제 있는 자에서 영적서밋으로 거듭난 70인 제자 베드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후서- 전도서 1:2-3, 베드로후서 3:18

정윤돈 목사님

- * **전1:2-3**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 * **벧후3: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양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한 알의 밀알처럼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변한다고도 하고, 안 변한다고 한다. 여러분은 변하셨는가.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롭게 거듭난다. 그러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십 년 전에 만났던 친구를 만나면 똑같다. 나무가 쇠가 되지는 않지만 나무는 책상이 되고 작품도 될 수 있다. 우리의 삶, 인격,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발전해간다. 이것이 성숙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어떤 분은 아무리 교육시켜도 성숙되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어려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작은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발전이 없다. 성장이 없는 것이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선생님이나 인상만 써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하는 사람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미리 거듭나는 것이다. 이 예배에 승리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왜 오늘은 거듭남을 이야기했냐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고자 한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다. 베드로 사도는 교육받지 못한 어부출신이었으나 영적인 문제와 성격적인 많은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여 대표적인 영적인 서밋의 반열에 도달하였다. 그 증거를 우리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해 볼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여러분의 성격, 성질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전도를 하려면 말, 행동, 태도도 조심하며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가문에 이루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거듭나고 복음화되어야 한다. 어떤 분은 ‘나는 원래 그래.’한다. 그러나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전도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한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베드로후서이다. 베드로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론과 끝을 내고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끝까지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로 인생을 마친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 성격적으로 이상한데 복음을 전하다보니, 교회를 살리다보니 완전히 변화된 인물이 베드로이다. 내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지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1. 첫 번째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연약한 부분과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베드로는 학벌도 변변하지 못한 갈릴리 호수 어부출신이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년에 가장 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에 집중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237나라, 세계복음화하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러한 응답을 램턴트들이 받고 있다.

(2)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많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폭력적인 것도 영적인 문제이다. 화가 너무 심해지면 내 인생에 장애를 주고, 너무 넘치면 사탄이 역사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의 귀를 자른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어부생활을 할 때도 싸움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상황과악도 못하고 뒷일도 생각하지 않는 단순하고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3) 베드로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즉, 그는 쉽게 맹세하고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가벼운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자 2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4)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비겁한 배신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근본적인 원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①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②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③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5) 또한 베드로는 생각도 없고, 그 나이에 철도 들지 않은,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맞이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 외에도 베드로는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알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중간사역자인 여러분이 새신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죽어간다.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치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살아야지 친구, 직장, 주위가 다 살아난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 후로 30년 동안 서서히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당장은 되어지지 않아도, 예배에 성공하다보면 어느 날 달라진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성공이 다 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달라졌네’라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2. 두 번째에서는 거듭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 직전 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전한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첫 번째로 ‘더욱 힘써’ 영적인 성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의 7단계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① 믿음에 덕을, ② 덕(확신, 뛰어난)에 지식을 ③ 지식에 절제를, ④ 절제에 인내를, ⑤ 인내에 경건을 ⑥ 경건에 형제 우애를, ⑦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덕은 뛰어난 인격자라는 뜻이 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초특급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영적성장의 목표는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너무나 부족했던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까지 참여하라고 권할 정도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우리가 안 되더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2) 베드로후서 2장 전체에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면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물몬교, JMS 등이 행하고 있는 모든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이단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경을 정확히 알 때 이단 사이비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본래의 지폐를 잘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원래 지폐와 틀린 것이 위조지폐라는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이 소중하고 가치있기 때문에, 교회가 피해나지 않도록 전도하려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3) 마지막 3장에서는 그릇된 종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종말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겠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멸망과 심판이 어디 있느냐.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 것이다. 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예배 하나가 축복으로 쌓이는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조심하고, 인내하며, 거룩한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다.

(4) 또한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이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해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워낙 창세기 3장에 썩어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만약 우리들이 언약의 7대 여정 속에 있다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믿고 기도만 하면, 전도하려고 신경만 써도 응답을 받는다. 요셉처럼 노예생활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총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다. 복음과 말씀 속으로 확실히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처럼 이러한 거듭남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5력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영력이다. 베드로 사도는 참된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진정한 영적인 힘이 든든하게 생기는 것이다.

2. 지력이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과 램넌트들이 강단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3. 체력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다른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 그 체력으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30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교회를 돌보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4. 경제력이다. 베드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제국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5. 인력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 베드로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팅하기 위해 베드로처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소중한 깨달음과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성령충만함을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강단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항상, 순간순간 체험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와 복음이 다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